

李白<贈>詩 譯解 및 考察(6)

— (제27수에서 제29수까지)

趙成千·趙得昌*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제27수 崔侍御에게 드림
 - 2.2 제28수 李邕께 올림
 - 2.3 제29수 덕을 말하며 진정을 표현하여 어사대부 哥舒翰께 올리며
3. 결론

1. 서론

李白的 가장 이른 시문집은 唐代 李陽冰이 편찬한 《草堂集》10권이었는데 산일되었다. 현재 통행본은 '宋蜀本'으로 北宋 宋敏求(1019~1079)가 增刻한 《李太白文集》 30권이다. 송족본 《이태백문집》은 '古風'59수와 樂府詩를 실은 후 그 다음부터는 내용별로 歌吟, 贈詩, 寄詩, 別詩, 酬答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元代 蕭士贊의 《分類補注李太白詩》 및 清代 王琦의 《李太白詩集注》 등의 주요 판본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였다. 송족본 《이태백문집》 제8권에는 '贈詩'를 설정하여 123수를 실고 있다. '贈詩'란 자신이 느낀 바, 표현할 바, 생각한 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시로 써서 친구 및 지인에게 보내어 자신의

* 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主著者, sczhao@hanmail.net) · 協成大學校 中國通商文化學科 教授(交信著者, chodc38@nate.com)

감정과 뜻을 기탁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의 제목에 ‘贈’字가 들어 간 경우가 많다. 이백의 ‘贈詩’에서는 그가 시를 통해서 표현한 情志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교제한 친구나 지인 등과의 관계 및 교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이백의 ‘贈詩’ 완역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그래서 ‘贈詩’에 대한 역주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中國學論叢》 등에 발표하였다.¹⁾ 본고는 이백의 ‘贈詩’ 제27수에서 제29수를 역주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底本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그 형식은 原文을 제시하고 번역을 하였으며 註釋을 달았으며 이어 校記, 詳釋, 解說을 붙였다. 번역은 자구의 直譯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의 순통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意譯을 한다. 시적인 어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註釋은 자구의 풀이는 물론 그와 관련된 用例 및 典故 등을 들어 설명하고 전적의 원문을 게재하여 번역함으로써 학습성을 제고한다. 校勘은 詹鍈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교감이 있을 경우 추가한다. 詳釋은 逐字 번역을 더욱 상세하게 보충하면서 행간의 함의를 풀어내어 설명한다. 解說은 시에 대한 해제, 연대, 역대 의견 등을 덧붙여 전체 시를 해설하여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본 연구는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외에 국내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 및 국외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및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등을 참고하고 검토하여 그 이동을 고찰한다.

1) ‘贈詩’의 역해 결과는 다음과 같다. <李白 <贈>詩 譯解(1)>(《中國學論叢》 제48집(2015.5.30.)), <李白 <贈>詩 譯解(2)>(《中國語文論叢》 제69집(2015.6.30.)), <李白 <贈>詩 譯解(3)>(《中國文化研究》 제29집(2015.8.30.)), <李白 <贈>詩 譯解(4)>(《中國學論叢》 제50집(2015.11.30.)), <李白 <贈>詩 譯解 및 考察(5)>(《中國學論叢》 제64집(2019.6.30.))

2. 본론

2.1 제27수 崔侍御에게 드림(贈崔侍御)²⁾

黃河三尺鯉, 嚮하의 석 자 잉어

- 2) 崔侍御: 崔成甫로 校書郎·攝監察禦史를 역임. 崔沔의 長子, 崔祐甫의 형. 李華의 <崔孝公(沔)文集序>에 “長子 崔成甫는 進士로 급제하여 校書郎·陝縣尉의 관직에 올랐다. 당시에 이름이 알려졌지만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長子成甫, 進士擢第, 校書郎·陝縣尉, 知名當時, 不幸早世.)”라고 하였다. 顏真卿의 <崔孝公宅陋室銘記>에 “長子 최성보는 자유로운 행동을 하면서 문재의 명성이 있었다. 진사, 교서랑의 관직을 역임하였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다(長子成甫, 儻有才名, 進士, 校書郎, 早卒.)”라고 하였다. 또 <有唐通議大夫守太子賓客贈尚書左僕射崔孝公(沔)墓誌>의 뒤에 그의 동생 崔祐甫의 附記가 있는데, 여기에서 “효공(崔沔)의 장자 成甫는 탈상하고 陝縣尉에 제수되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폄적되었다. 乾元의 초기에 江介(역주: 長江 동쪽 지역)에서 죽었다(孝公長子成甫, 服闕授陝縣尉. 以事貶黜. 乾元初卒於江介.)”라고 하였다. 이백의 <澤畔吟序>(역주: 崔成甫의 <澤畔吟>에 이백이 서문을 붙인 것)에 “<澤畔吟>은 폄적당한 崔公이 지은 것이다. 최공 가문은 대대로 문장 대가로 존중되었고, (최공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출중하였다. 최공이 집에서 나와 처음 관직을 한 것은 비서성 교서랑이고, 두 차례의 馮翊縣尉·陝縣尉를 지냈다. 중간에 어사대의 보좌관을 지냈는데, 사건에 연루되어 湘陰縣尉로 폄적되었다(<澤畔吟>者, 逐臣崔公之所作也. 公代業文宗, 早茂才秀. 起家校書蓬山, 再尉關輔, 中佐於憲車, 因貶湘陰.)”라고 하였다. 위 문장에서 ‘逐臣崔公’은 최성보, ‘起家校書蓬山’의 ‘起家’는 집을 나와 관직을 시작한 것, ‘蓬山’은 秘書省, ‘再尉關輔’은 馮翊縣尉, 陝縣尉가 된 것을 말한다. ‘關輔’의 ‘關’은 關中, ‘三輔’는 右扶風·左馮翊·京兆尹. 이 지역 모두 京畿와 都畿에 있었기 때문에 再尉關輔라 하였다. ‘中佐於憲車’는 攝監察禦史를 맡은 것을 말한다. ‘憲臺’·‘憲車’는 어사대 및 어사대 관원을 말한다. ‘因貶湘陰’은 최성보가 사건에 연루되어 ‘湘陰’으로 폄적된 것을 말한다. <舊唐書韋瓘傳>에 최성보에 대한 다음 기록이 있다. “天寶 원년(역주: 742년) 3월, 陝郡太守로 발탁되었다. ……潭成에 미쳐서 陝縣尉 崔成甫는 堅爲를 陝郡太守로 삼아 새 못을 착공하여 만들고 또 揚州의 銅器를 보내고 이곳의 가사를 번역하여 두 현의 관가를 널리 모아 그것을 노래 부르게 했다. ……최성보가 또 가사 10수를 지었다. ……첫 번째 배가 선두가 되어 그것을 노래했다.(天寶元年三月, 擢爲陝郡太守……及此潭成, 陝縣尉崔成甫以堅爲陝郡太守鑿成新潭, 又致揚州銅器, 翻出此詞, 廣集兩縣官使婦人唱之……成甫又作歌詞十首……於第一船作號頭唱之.)” 최성보는 이때 이로써 이름을 알리고, 陝縣尉에서 攝監察禦史가 되었다. ○侍御: 당대의 侍御史·殿中侍御史·監察侍御史에 대한 호칭. <李白詩文繫年>에서는 이 시는 天寶3년에 지은 것으로, 이백이 조정을 떠난 뒤 최성보가 다시 천거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라고 하였다.(이상은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百花文藝出版社, 1996년, 1359-1360쪽 및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文集>, 三民書局, 2017년, 238-239쪽 참고)

- 本在孟津居.³⁾ 본래 맹진에서 살았지.
 點額不成龍,⁴⁾ 이마를 부딪쳐 용이 되지 못하고
 歸來伴凡魚.⁵⁾ 돌아와서는 못 물고기와 어울리네.
 故人東海客,⁶⁾ 오랜 친구 그대는 동해의 나그네
 一見借吹噓.⁷⁾ 한번 주어주길 원하네.
 風濤儻相因,⁸⁾ 바람과 파도에 의거하여
 更欲凌崑墟.⁹⁾ 다시 곤륜산을 넘어보려네.

- 3) 孟津: 고대 황하의 나루 이름. 지금의 河南 孟州 西南·孟津동북에 있다. 《尚書·禹貢》의 “동으로 孟津에 이른다(東至於孟津).에 그 용례가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孟津’은 周 武王이 紂를 정벌할 때, 이곳에서 제후들과 맹약을 하고서 渡河하였기 때문에 盟津이라고도 한다.
- 4) 點額: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龍門에 뛰어오른 잉어 머리가 석벽에 부딪치다. 이로써 과거에 낙제하거나 벼슬길에서 뜻을 얻지 못함을 비유하였다. 北魏 酈道元의 《水經注·河水四》에 “철갑상어(鱣)와 다랑어(鮪)가 단단한 구멍을 뚫어나와서 3월이 되면 龍門을 건너려고 올라가는데, 건너가면 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마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鱣, 鮪也. 出羣穴, 三月則上渡龍門, 得渡爲龍矣. 否則, 點額而還.)”라고 하였다. 나중에 ‘점액’으로써 벼슬길에서 뜻을 잃은 것 혹은 과거에 낙방한 것을 비유하였다. 이 시는 이 뜻을 취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붓으로 이마에 점을 찍는다는 뜻으로 상서의 조짐을 비유하는 것이다. 《北齊書·文宣帝紀》에 “이미 왕이 되었는데, 꿈에서 어떤 사람이 붓으로 그의 이마에 점을 찍었다. 다음 날 그 꿈을 빈객 王曇首에게 알리며 묻기를, ‘내가 왕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꿈인가?’라고 하였다. 王曇首이 재배하고 경하하며 말하기를 ‘王 위에 점을 더한 것은 바로 主자가 되는 것이니, 황제로 등극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既爲王, 夢人以筆點己額. 且以告館客王曇首曰: ‘吾其退乎?’ 曇首再拜賀曰: ‘王上加點, 便成主字, 乃當進也.))”라고 하였다.
- 5) 伴: 짝하다. 함께하다. 어울리다. ○凡魚: 보통의 물고기, 평범한 사람을 비유.
- 6) 東海客: 東海釣鼈客을 뜻하는 것으로, 釣鼈客은 호방한 흥금과 원대한 포부를 가진 것을 비유한다. 郁賢皓는 최성보의 기개가 호방함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였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三民書局, 2011년, 458쪽)
- 7) “一見借吹噓”句: 최성보의 천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 郁賢皓는 이 구를 “만나기만 하면 조그마한 힘이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네”의 뜻으로 풀이했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458쪽). 그러나 이 구의 ‘見借’의 ‘見’을 바라다, 희망하다, 하고 싶다 등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見借吹噓”를 ‘주어줌을 받기를 원한다. 즉 ‘천거받기를 원하다’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吹噓: 주어주다, 남의 장점을 크게 부풀려 칭찬하여 천거하다. 《方言》 제12에 “吹는 扇과 같은데 돕다 이다(吹, 扇, 助也.)”라고 하였는데, 郭璞이 “吹噓는 주어올림이니 서로 돕다 이다(吹噓, 扇拂, 相佐助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 8) 相因: 서로 있다. 서로 계승하다. 《史記·酷吏列傳》에 “2천 석 복록의 관리로 감옥에 갇힌 자가 새로 들어온 사람과 이전에 들어온 사람이 서로 이어져 백여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二千石繫者新故相因, 不減百餘人.)”에 그 용례가 있다. 이외에도 ‘서로 관련되다’, ‘서로 의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相因’을 ‘相見’ 즉 ‘서로 만나다’로 해석해도 좋다.
- 9) 崑墟: 崑崙墟를 말한다. 《水經注·河水》에 “곤륜터는 西北에 있다. ……그 높이는 만 천

何當赤車使, 어느 때라야 천자의 사자가
再往召相如.¹⁰⁾ 사마상여를 다시 부르러 올까?

<校記>

제목이 文苑英華¹¹⁾에는 “寄崔侍御三首, 此其三首”로 되어 있다. ‘御’가 蕭本¹²⁾·郭本¹³⁾·劉本¹⁴⁾·朱本¹⁵⁾·嚴評本¹⁶⁾에는 ‘郎’으로 되어 있는데, 詹鏞은 ‘郎’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¹⁷⁾

제1구의 ‘三’이 蕭本·玉本¹⁸⁾·郭本·劉本·嚴評本·全唐詩本¹⁹⁾에는 ‘二’로 되어 있다.

제2구의 ‘本’이 蕭本·玉本·郭本·劉本·嚴評本·全唐詩本에는 ‘二’로 되어 있다.

리 이고, 河水가 그 동북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온다(崑崙墟在西北……其高萬一千里, 河水出其東北隅.)라고 하였다.

- 10) “何當赤車使, 再往召相如.”二句: 이 두 구는 司馬相如의 이야기로 이백 자신을 사마상여에 비유하였다. ○何當: 어느 때 ○赤車使: 천자의 사자. 고대에는 현달한 사람이 타는 홍색의 수레를 ‘赤車’라고 하였다. ○召相如: 사마상여를 부르다. 《史記·司馬相如列傳》에 관련 전고가 있다. 그 전고는 다음과 같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 蜀나라 사람 楊得意가 狗監(역주: 황제의 사냥개를 관리하는 직책)이 되어 武帝를 섬기게 되었다. 그때 마침 무제는 <子虛賦>를 읽고 그것을 칭찬하며 이렇게 한탄했다. ‘짐은 어찌 이 사람과 동 시대에 살지 못했딘가!’ 양득의는 말했다. ‘신의 마을 사람 중 사마상여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자허부>를 지었다고 합니다.’ 무제는 놀라며 곧 상여를 불러 물었다. 상여가 이렇게 대답했다. ‘<자허부>는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는 제후의 일에 대해 말한 것으로, 황제께서 볼 만한 것이 못됩니다. 청컨대 황제를 위해 <遊獵賦>를 짓게 해주시면賦가 완성되는 대로 바치겠습니다.(蜀人楊得意, 爲狗監, 侍上. 上讀<子虛賦>而善之, 曰: ‘朕獨不得與此人同時哉!’ 得意曰: ‘臣邑人司馬相如, 自言爲此賦.’ 上驚, 乃召問相如. 相如曰: ‘有是. 然此乃諸侯之事, 未足觀, 請爲天子遊獵之賦. 賦成奏之.’)”

11) 明隆慶 간행본에 中華書局 영인본을 참고한 《文苑英華》.

12) 元刻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13)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 30卷.

14)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 중 《李翰林全集》 42卷.

15) 隆慶六年(서기 1572년)에 간행된 朱謙의 《李詩選注》 13卷 및 《李詩辨疑》 2卷.

16) 明崇禎3年(서기 1630년)에 嚴滄浪과 劉會孟이 評點한 《李杜全集》 중 《李太白集》 22권.

17)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百花文藝出版社, 1996년, 1360쪽.

18) 嘉靖25年(서기 1545년) 王几山人의 校本 《分類補注李太白詩》 25卷.

19) 上海古籍出版社가 영인한 揚州詩局的 刻本 《全唐詩》와 中華書局的 點校本 《全唐詩》.

제2구의 '本'이 文苑英華에는 '住'로 되어 있다.

제4구의 '伴'이 송축본에 "어떤 곳에는 作으로 되어 있다.(一作作)"라는 주석이 있다. 咸本²⁰⁾·蕭本·玉本·郭本·劉本에는 "一作作"라는 주석이 없다.

제7구의 '因'이 咸本·蕭本·玉本·郭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文苑英華에는 '見'으로 되어 있다. 咸本에서는 "어떤 곳에는 因으로 되어 있다(一作因)"라고 주석을 달았다. 劉本에서는 "어떤 곳에는 相見으로 되어 있고 또 相遇라고 되어 있다(一作相見, 又作相遇.)"라고 주석을 달았다.

제8구의 '墟'가 文苑英華에는 '墟'로 되어 있다.

제9구·제10구 두 구가 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嚴評本·全唐詩本·王本²¹⁾에는 없다. 咸本에서는 "어떤 판본에는 이 두 구가 없다(一本無此二句.)"라고 주석을 달았다. 全唐詩本에서는 "어떤 판본에는 이 아래에 何當赤車使, 再往召相如가 있다(一本此下有何當赤車使, 再往召相如.)"라고 주석을 달았다. 제9구의 '車'가 송축본에는 '草'로 되어 있는데, 詹鏞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²²⁾

<詳釋>

나는 황하의 석 자 크기의 잉어처럼, 본래는 맹진에서 살았다. 용문을 뛰어 넘지 못하여 용이 되지 못하였다. 때문에 돌아와서 못 물고기들과 짝을 지어 어울리는 처지이다.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어온 그대가 동해의 나그네이니, 나를 추어서 천거해 주길 바란다. 만약 바람과 파도가 서로 만난다면, 나는 다시 곤륜산을 뛰어 넘고자 한다.

어느 때라야 사마상여처럼, 황제가 파견한 사자의 수레를 타고 다시 부름을

20)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 83권 중의 《李翰林集》 30卷.

21)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22)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62쪽.

받을 수 있을까.

<解説>

이 시는 이백이 자신의 懷才不遇를 나타내며 崔侍御에게 자신을 천거해서 자신이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바라는 시이다. 이 시는 天寶3년(744년)에 현종으로부터 하사금을 받고 한림봉공에서 물러나 산으로 돌아간 뒤에 지은 것이다. 이 시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4구까지로 孟津 黃河의 잉어로써 자신을 비유하였다. ‘點額’으로 용이 되지 못하고 돌아와서 못 물고기들과 짝을 지어 노는 것으로 벼슬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였다. 그 비유가 매우 생동적이다. “歸來伴凡魚”句는 이 시가 지어진 시기 및 당시의 처지를 짐작하게 한다. 둘째 단락은 제5구에서 제8구까지로 자신의 벗 최성보가 ‘東海客’이기 때문에 그가 일으키는 바람과 파도가 서로 만나면 즉 천거를 받아서 곤륜산을 넘겠다는 바람을 표현하였다. 마지막 단락은 제9구에서 제10구까지로 사마상여로 자신을 비유하여, 군왕이 사자를 파견하여 자기를 불러주기를 바랐다.²³⁾

이백은 관직의 顯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장의 성취에 있어서도 司馬相如를 동경하였다. 때문에 이 시 외에도 그의 시문에는 자신을 사마상여에 비유하여 그 바람을 드러낸 경우가 있다. <贈從弟南平太守之遙> 첫 수의 “한의 천자께서 네 마리 말을 맨 수레 보내주시고, 천자의 사자는 촉도에서 사마상여를 맞이하네(漢家天子馳駟馬, 赤軍蜀道迎相如.)”, <自漢陽病酒歸寄王明府>의 “성군께서 또한 자허부를 들으려 하시고, 사마상여 또한 더불어 문장을 논하려 하네(聖主還聽子虛賦, 相如却欲論文章.)” 및 <贈張相鎬>의 “나는 열다섯에 기이한 책을 보았고, 부를 쓰면 사마상여를 능가하였네(十五觀奇書, 作賦凌相如.)” 등에 잘 나타나 있다.

23) 이상은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458쪽 참고.

2.2 제28수 李邕게 올림(上李邕)²⁴⁾

大鵬一日同風起,	대룡이 어느 날 바람 타고 일어나
搏搖直上九萬里. ²⁵⁾	위로 치솟아 곧장 구만리를 오르네.
假令風歇時下來,	설령 바람이 멎었을 때 내려온다 해도
猶能擲卻滄溟水. ²⁶⁾	여전히 큰 바닷물을 출렁이게 할 수 있네.
世人見我恒殊調, ²⁷⁾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이 늘 남다르다 여기고
見余大言皆冷笑. ²⁸⁾	내 호언장담을 듣고 모두 차갑게 웃네.

24) 李邕: 唐代 서예가이며 문장가. 北海(지금의 山東省 濰坊市 昌樂縣 東南部)太守를 역임하였다. 자는 泰和. 李白, 杜甫, 高適 등과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백의 다른 시 <題江夏修靜寺>와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에도 등장한다.

25) 搏搖: 바람을 타다. 《莊子·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큰 바다로 옮기려면 물을 쳐서 삼천 리를 올라가게 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셔야 된다(鵬之徙於南溟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陸德明은 “司馬遷은 ‘상행풍을 扶搖라 한다. 라 했고, 《爾雅》에서는 ‘扶搖를 회오리바람이라’라 했고, 郭璞은 ‘폭풍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이다’라 하였으며, 또 사마천은 ‘搏은 날아서 위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司馬云: ‘上行風謂之扶搖.’ 《爾雅》云: ‘扶搖謂之颿.’ 郭璞云: ‘暴風從下上也.’ 又司馬云: ‘搏, 飛而上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詹鏞은 ‘搏搖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며, ‘扶搖가 더 적절하며, ‘扶搖는 이음질어로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67쪽)

26) 擲: 원래는 ‘붙들어 매다’. 詹鏞은 다른 판본에 근거하여 ‘簸’이 옳다고 하였으며, ‘簸’의 뜻은 ‘蕩’이라고 하였다.(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67쪽). 연구자는 ‘흔들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卻: 물러나다. ○滄溟: 큰 바다.

27) 殊調: 보통사람과는 다른 의론을 발표하다.

28) 大言: 호언장담. 《漢書東方朔傳》에 관련 전고가 있다. 그 전고는 다음과 같다. “東方朔은 字가 曼倩이며, 平原厭次 출신이다. 漢武帝가 막 즉위하셨을 때, 천하사람 중 방정하고 현량하고 글재주 있는 선비들을 구하여 차서를 두지 않고 대우하셨다. 수많은 각지의 선비들이 글을 올려 세상의 득실을 논하였다. 자신을 뽑내는 자들이 천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채용되지 못한 자는 언제나 올린 글이 황제가 보는 것만으로 끝날 뿐이었다. 동방삭은 처음으로 와서는 황제에게 글을 올려 말하였다. ‘신 동방삭은 조실부모하고, 형님과 형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나이 13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3년 동안 글과 문서를 많이 익혔습니다. 15살 때에는 김술을 배웠고, 16살 때에는 《詩》와 《尚書》를 배우며, 글자 이십 이만 자를 읽었습니다. 19살 때에는 孫子和 吳起의 병법, 작전 방법, 징과 북을 치는 법을 배웠는데, 또한 이 방면의 글자 이십 이만 자를 읽었습니다. 신 동방삭은 이미 글자 사십사만 자를 읽었으며, 늘 子路의 말을 추종해 왔습니다. 신 동방삭은 나이가 22살이며, 키가 9척 3촌이며, 눈은 매단 구슬처럼 아름답게 빛나며, 이는 엮어놓은 조가비처럼 고롭니다. 용맹하기는 齊나라의 孟賁과 같고, 민첩하기는 吳나라의 慶陵과 같고, 청렴하기는 齊나라의 鮑叔과 같고, 약속 지키기로는 《莊子》에 나오는 尾生과 같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천자의 대신이 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 동방삭은 죽음을 무

宣父猶能畏後生, 공자께서도 젊은이는 두려워할 만하다 하셨으니
丈夫未可輕年少.²⁹⁾ 대장부께서는 날 어리다고 깔보지 마소서.

<校記>

제2구의 '搏'이 咸本에는 '搏'으로 되어 있고, 郭本에는 '扶'로 되어 있다. 劉本에서는 주석을 달아 “搏搖는 다른 곳에서 扶搖라고 한다(搏搖一作扶搖.)”라고 하였다. 詹鍇은 '扶搖'가 더 좋다고 하였다.³⁰⁾

제4구의 '擲'가 咸本·蕭本·玉本·郭本·劉本·朱本·全唐詩本·王本³¹⁾에는 '簸'로 되어 있는데, 詹鍇은 '簸'가 옳다고 하였다.³²⁾

제5구의 '世'가 咸本·蕭本·玉本·郭本·王本에는 '時'로 되어 있다. 劉本에서는 “世人은 다른 곳에서 時人으로 되어 있다(世人一作時人.)”라고 하였다.

제5구의 '我'가 朱本에는 '余'로 되어 있다.

제5구의 '恒'이 咸本·蕭本·元刊二十六卷本³³⁾·郭本·朱本·全唐詩本에는 '指'로 되어 있다.

릅쓰고 재배하면서 상주합니다.' 동방삭의 글은 겸손하지 않고, 자신을 극도로 칭찬하고 있었는데, 황제께서는 그 글을 훌륭하다고 여겨 동방삭을 待詔公車에 봉하였다(東方朔, 字曼倩, 平原厭次人也. 武帝初即位, 徵天下舉方正賢良文學材力之士, 待以不次之位. 四方士多上書言得失, 自炫鬻者以千數, 其不足采者輒報聞罷. 朔初來, 上書曰: '臣朔少失父母, 長養兄嫂. 年十三學書, 三冬文史足用. 十五學擊劍. 十六學《詩》·《書》, 誦二十二萬言. 十九學孫吳兵法, 戰陣之具, 鉦鼓之教, 亦誦二十二萬言. 凡臣朔固已誦四十四萬言. 又常服子路之言. 臣朔年二十二, 長九尺三寸, 目若懸珠, 齒若編貝, 勇若孟賁, 捷若慶忌, 廉若鮑叔, 信若尾生. 若此, 可以爲天子大臣矣. 臣朔味死再拜以聞.' 朔文辭不遜, 高自稱譽, 上偉之, 令待詔公車.)" 詹鍇은 《漢書東方朔傳》에 나오는 글에서 東方朔이 22살 때 大言을 했지만, 漢武帝가 훌륭하게 여긴 사실에 근거하여 19세였던 이백이 감히 이렇게 시를 쓴 것은 이를 모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68쪽)

29) 丈夫: 성인남자에 대한 존칭. 여기에서는 李邕를 가리킨다. 郁賢皓는 일설에 대장부의 뜻도 있다고 하였다(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上), 三民書局, 2011년, 459쪽). 연구자는 이 뜻을 취하였다.

30) 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67쪽.

31)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 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的 조판본 《李太白全集》.

32) 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67쪽.

33) 元刻 《唐翰林李太白集》 26卷.

제6구의 '見'이 郭本·劉本·朱本·全唐詩本에는 '聞'으로 되어 있다. 劉本에서는 "聞余는 다른 곳에서 見余로 되어 있다(聞余一作見余.)"라고 주석을 달았다.

제7구의 '父'가 송촉본에 '公'으로 되어 있었는데, 詹鏞이 咸本·蕭本·元刊二十六卷本·郭本·劉本·朱本·全唐詩本·王本·繆本³⁴⁾에 '父'로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父'로 고쳤다.³⁵⁾

<詳釋>

《莊子·逍遙遊》에 나오는 大鵬이 어느 날 바람을 타고 일어나 그 바람에 의지해 위로 치솟아 곧장 구만리를 올라간다. 설령 바람이 멎어 그 바람이 때로 아래로 내려오는 날이 있어도 대붕은 여전히 큰 바닷물을 흔들어 출렁거리게 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보통사람과 늘상 다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東方朔처럼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차갑게 웃는다. 宣父인 공자께서도 젊은 사람은 두려워할 만하다고 하셨으니 대장부인 李邕이시여 날 어리다고 깔보지 말아주소서.

<解說>

이 시는 李白이 李邕를 예방하였을 때 그에게 홀시 받아 이에 반박하는 시이다. 이 시에서 이백은 자신을 대붕으로 비유하며 당시의 대선배이고 서예가이며 문장가로 알려진 이옹에게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며 비록 자신이 어리지만 경시하지 말아줄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의 창작시기에 관해 錢謙益은 <少陵先生年譜> '天寶4년(745년)'에서 "이옹이 北海太守일 때, (齊州) 歷下亭에서 사람들을 모시고 연회를 열었는데, 이백과 高適이 모두 이옹에게 주는 시를 가

34) 清 繆曰芑의 송촉본을 영인한 《李翰林集》 30卷.

35) 詹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67쪽.

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같은 시기이다.(李邕爲北海太守, 陪宴(齊州)歷下亭, 李白·高適俱有贈邕詩, 當是同時.)"라고 하였다.詹鍇은 葛景春의 논문 <李白(上李邕)寫於蜀中>(《社會科學研究》, 1986년 제6기)에서 이옹이 開元 7년(719년)에서 9년(721년) 사이에 渝州(역주: 지금의 重慶市)刺史를 지냈고, 이백이 이때쯤 이옹을 방문하였음을 고찰한 것을 인용하면서 葛景春의 설을 긍정하고 있다.³⁶⁾ 그리고 安旗는 개원 8년(720년)에 이백이 成都를 유람한 후 峨眉山을 가기 전 渝州에 가서 이옹을 만났다고 하였다.³⁷⁾ 그러나 郁賢皓는 천보 4년이라면 이백이 45세여서 '年少'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며, 개원 7년에 이옹을 만나고 지은 것도 유력한 증거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年少'를 반드시 젊은이로만 보지 않고 후배라고 본다면 천보 4년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³⁸⁾

한편 이 시는 이백이 연장자인 이옹을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위작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蕭士贊은 "이 시는 이태백이 지은 것이 아닌 것 같다(此篇似非太白之作.)"라고 하였다. 嚴評本에는 명나라 사람의 '위작이다(是僞作)'라는 '批語'가 있고, 嚴羽는 "어린 아이의 말과 같은데, 어찌 이옹이 보도록 할 수 있었겠는가?(小兒語, 豈可使北海見?)"라고 하며 위작의 가능성을 내보였다. 《李詩辨疑》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위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옹은 이백에게 선배뻘이다. 이옹은 文名을 떨치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이 추종하였으니, 이백이 경사에 와서 반드시 그와 만났을 것이다. 반드시 위아래가 없는 예로 대하지 않고, 당연히 후배의 위치를 따랐을 것이다. 지금 시의 취지를 살피니, 시어와 같은 경우에는 대등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지만, 문사의 취지는 천박하고 과장되어 있고 또 高官을 배알하고, 연장자를 뵈고, 학덕 있는 사람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다. 이백은 비록 호방한 사람이지만 崔侍御, 韋祕書, 張衛尉, 孟浩然 등에게 준 시는 그 말이 모두 진중하고 무례하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徐安宜, 盧主簿, 王瑕丘, 韋參軍, 何判官

36) 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66쪽.

37) 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 1369쪽.

38)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459-460쪽 참고.

등에게 준 시들은 비록 위아래를 구분하였지만, 모두 즐겁고 흡족한 뜻을 다하고 있으며, 오만한 말이 없었다. 하물며李邕에게 있어서라! 이러한 점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다.”³⁹⁾

이 시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제1구에서 제4구까지로 이백이 자신을大鵬에 비유하며 대붕의神力을 과장적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제5구에서 제8구까지로 이옹을 일반적인 세상 사람에 빗대어 자신을 경시하는 태도를 밝히며 공자의 예를 들며 대장부라면 자신을 어리다고 경시해서는 안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는 상상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표현도 자유분방하여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豪放하면서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이백의 성격이 잘 드러난 시이다.

2.3 제29수 덕을 말하며 진정을 표현하여 어사대부哥舒翰에게 올리며 (述德兼陳情上哥舒大夫)⁴⁰⁾

39) “按李邕於李白爲先輩，邕有文名，時流推重，白至京師，必與相見，必不敢以敵體之禮自居，當從後進之例。今玩詩意，如語平交，且辭意淺薄而誇，又非所以謁大官·見長者·待師儒之禮也。白雖不羈，其贈崔侍御·韋祕書·張衛尉·孟浩然等，作辭皆謹重而無褻慢之意，次及徐安宜·盧主簿·王瑕丘·韋參軍·何判官等，雖有尊卑之殊，俱盡歡洽之意，無有謾辭，矧李邕乎！以此益可疑矣。”詹鍈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1364-1365쪽, 재인용.

40) 述德陳情: 唐代에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글을 올릴 때의 상용어. 요직에 있는 사람의 덕을 자세히 서술하고 아울러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뜻이다. ○哥舒大夫: 哥舒翰을 말한다. 哥舒翰(?~757년)은 突騎施(당나라 시기 변방부족, 西突厥에 속하고, 安西都護府 관할) 哥舒 부족의 후예로, 부친은 突厥人, 모친은 胡人. 唐의 명장, 군사가. 天寶6년(747년)에 哥舒翰은 王忠嗣에 의해 大門軍副使로 발탁되었다가 左衛郎將이 되었다. 그는 吐蕃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吐蕃을 격파하여 右武衛員外將軍이 되었다. 王忠嗣가 李林甫의 모함을 받아, 哥舒翰이 그의 관직을 이어 받았다. 그는 왕충사의 무죄를 간절하게 주장하여 왕충사는 결국 玄宗의 사면을 받게 되었다. 天寶8년(749년), 哥舒翰은 石堡城의 전투에 隴右·河西 및 突厥阿不思를 이끌고 참전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중국에는 石堡城을 점령하고 吐蕃의 大將 鐵刀悉諾羅 등을 포로로 잡았다. 전공으로 特進하여 鴻臚員外卿이 되었다. 天寶11년(752년), 開府 儀同三司가 되었다. 다음해 西平郡의 왕으로 봉해졌다. 천보 13년(754년)에 太子太保가 되고 禦史大夫를 겸하였다. 安祿山의 난에 가서한은 尙書左仆射·同中書門下平章事로 기용되어 潼關에서 안록산을 막았다. 다음 해 靈寶(역주: 지금의 河南省 靈寶市)의 전투에서 대패하였다. 이에 가서한은 안록산의 포로가 되었다. 至德2년(757년), 당군이 兩京을 회복하자, 安慶緒가 鄴城으로 퇴각하면서 가서한을 살해하였다. 나중에 太尉로 추증되고 '武潯'의 시호를 받았다. 이백의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에는 가

天爲國家孕英才, 41)	하늘은 국가를 위해 영재 길러냈으니
森森矛戟擁靈臺. 42)	마음 속 전략은 무기고 병기처럼 가득하네.
浩蕩深謀嘖江海, 43)	심원한 지모는 강과 바다처럼 끝없이 넓고
縱橫逸氣走風雷. 44)	뛰어난 기상 바람과 우레처럼 증횡으로 달리네.
丈夫立身有如此,	대장부 입신이 이와 같으니
一呼三軍皆披靡. 45)	호령 한 번에 삼군이 모두 쓰러지네.
衛青漫作大將軍, 46)	衛青은 거저 대장군이 되었고

서한에 대한 묘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대는 가서한 장군을 본받아, 청해를 횡행 하며 밤에도 칼을 차고, 서쪽으로 석포성을 도륙하여 관직을 받을 수 없으리라.(君不能學哥舒, 橫行青海夜帶刀, 西屠石堡取紫袍.)”

41) 孕: 기르다. 양육하다.

42) “森森矛戟擁靈臺”句: 이 구는 哥舒翰의 군사전략이나 군사지략이 많고도 풍부함을 말한다. ○森森矛戟: 무기가 많고도 빼곡하다. ‘森森’은 원래 ‘초목이 무성하고 빼곡하다’의 뜻이다. 이 시에서는 병기(矛戟)가 무기고에 많고도 빼곡함을 형용한다. ‘矛戟’은 원래는 창을 말하나, 이 시에서는 군사전략, 군사지략을 뜻한다. ‘矛戟’이 때로 “사람의 예리함이 드러남”을 뜻하기도 한다. 《晉書·裴楷傳》에 “鍾會는 ‘(총명기가 다른 사람을 압도하여 예리함이 드러나) 많고 빼곡한 무기고를 보는 것과 같았으니, 단지 창이 앞에 있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鍾會如觀武庫森森, 但見矛戟在前.)’에 그 용례가 있다. ‘矛戟은 또한 “문자가 민첩하고 구사하는 언어가 예리함”을 비유하기도 한다. (唐)任華 <寄李白>의 “듣자니 왕년에 이백이 한림에 있을 때, 예리한 필치 가슴에 가득했지!(見說往年翰翰林, 胸中矛戟何森森.)”에 그 용례가 있다. ○靈臺: 내심, 흉중. 《莊子·庚桑楚》의 “만약 이리 했는데도 각종 재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모두가 하늘의 운명이지 사람 탓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이미 안정된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마음속으로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 지탱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므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若是而萬惡至者, 皆天也, 而非人也, 不足以滑成, 不可內於靈臺. 靈臺者有持, 而不知其所持而不可持者也.)”에 그 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郭象이 “靈臺란 마음이다(靈臺者, 心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43) “浩蕩深謀嘖江海”句: 哥舒翰의 지모가 심원하고 광대하기가 江海와 같음을 말한다.

44) “縱橫逸氣走風雷”句: 哥舒翰의 기백, 기상을 말한다. ○逸氣: 뛰어난 기상, 범속을 초탈한 기개. 《晉書·桓溫傳》의 “史臣이 말하길, 桓溫은 호걸의 범속을 초탈한 기개가 빼어나고, 문무의 뛰어난 재주를 품고 있다(史臣曰: 桓溫挺雄豪之逸氣, 韞文武之奇才.)”에 그 용례가 있다.

45) “一呼三軍皆披靡”句: 한 번의 호통으로 적군이 분분히 도주함을 말한다. ○披靡: 바람 따라 쓰러지는 모양. 《史記·項羽本紀》의 “이에 항왕은 호통을 치며 말을 달려 내려가니, 한 군은 모두 어지러이 흩어졌고, 마침내 한 장수의 목을 베었다(於是項王大呼馳下, 漢軍皆披靡, 遂斬漢一將.)”에 그 용례가 있다.

46) “衛青漫作大將軍”句: 哥舒翰의 재주가 멀리 衛青의 위에 있음을 말한다. ○衛青: 漢武帝 때의 명장으로 7차례 흉노의 정벌에 나가서 매번 전공을 세워서 관직이 大將軍에 이르렀다. 《史記·衛將軍驍騎列傳》에 그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있다. “대장군 위청은 平陽 사람이다. ……요새에 이르자, 천자는 사자에게 印綬를 가지고 가게 해서 軍中에서 車騎將軍 衛

白起眞成一豎子.⁴⁷⁾

白起는 정말 하나의 풋내기였을 뿐이네.

<校記>

제1구의 '天'이 咸本·蕭本·玉本·郭本·嚴評本에는 '人'으로 되어 있다.

제3구의 '噴'이 朱本에는 '噴'으로 되어 있다.

제7구의 '漫'이 咸本·蕭本·郭本·玉本에는 '謾'으로 되어 있다.

<詳釋>

어사대부 哥舒翰은 하늘이 국가를 위해 영재로 길러낸 인물이니, 가슴 속에는 전략이 풍부하여, 마치 무기고에 병기가 뻐뻐이 가득 찬 것과 같다. 그대의 지모는 심원하였으니, 강과 바다처럼 끝없이 넓다. 그대의 뛰어난 기상은 바람과 우레처럼 종횡무진하다. 대장부의 입신은 이와 같으니, 호령을 한번하면 三軍이 모두 바람 따라 쓰러진다. 漢武帝 때 衛靑은 그대에 비하면 거저 대장군이 되었고, 戰國의 秦昭王 때 白起 또한 그대에 비하면 정말 하나의 풋내기였을 뿐이니, 이들 모두 그대와는 비할 수 없다.

靑을 대장군에 봉했다. 그리하여 모든 장수들은 자신의 병사들을 대장군에 귀속시켰으며 대장군 위칭은 대장군의 官號를 세우고 돌아왔다.(大將軍衛靑者, 平陽人也. ……至塞, 天子使使者持大將軍印, 卽軍中拜車騎將軍靑爲大將軍, 諸將皆以兵屬大將軍, 大將軍立號而歸.) ○漫作: 헛되이 되다. 부질없이 되다. 거저 되다. 이백이 衛靑을 “漫作大將軍”이라 한 것은 衛靑이 한 무제의 황후인 衛夫人의 동생으로 인척관계 때문에 대장군이 되었다는 貶辭인 듯하다.

- 47) 白起: 戰國의 秦昭王 때의 명장으로 병사를 잘 부려서 전쟁에 여러 차례 승리하여 70여개의 성을 취함으로써 武安君에 봉해졌다. 《史記·白起王翦列傳》에 “白起라는 사람은 鄢 땅 사람으로 병사를 잘 부리고, 秦의 昭王을 섬겼다(白起者, 鄢人也. 善用兵, 事秦昭王.)”라고 하였다. 《史記·平原君虞卿列傳》에 “모수가 칼자루를 쥐고 앞으로 나와 말했다. …… 그런데 진나라의 白起라는 풋대기가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병사를 일으켜 초나라와 싸웠는데, 한 번 싸워서 鄢 땅과 郢 땅을 빼앗고, 두 번 싸워서 夷陵을 불태웠으며, 세 번 싸워서 초나라 왕의 선조를 욕보였습니다(毛遂按劍而前曰: ……白起, 小豎子耳, 率數萬之衆, 興師以與楚戰, 一戰而擧郢郢, 再戰而燒夷陵, 三戰而辱王之先人.)”라고 하였다. ○豎子: 사람을 멸시하여 부르는 말. 놈, 녀석의 뜻. “衛靑漫作大將軍, 白起眞成一豎子.” 두 구는 고대의 명장일지라도 모두 哥舒翰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解説>

이 시는 哥舒翰 장군을 칭송하며 쓴 시이다. 이 시에 대해 郁賢皓는 天寶14년(755년) 겨울 말 혹은 15년 初春 이백이 潼關으로 갔을 때 가서한에게 쓴 작품이라 하였다.⁴⁸⁾ 가서한이 천보14년 겨울에 皇太子先鋒兵馬元帥로 동관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高適이 바로 가서한의 부하로 있었고, 이백이 동관에 이르렀을 때 고적을 통해 이 시를 바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⁴⁹⁾

이 시기 당은 安史의 난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백은 “국가의 운명은 가서한에 달려 있다(國命懸哥舒)”(<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遊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라고 하였다. 이로써 이 시를 써서 그를 가송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한 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도 내재되어 있다.

《資治通鑑·唐紀33》의 “을축에 安祿山이 그 아들 安慶緒를 파견하여 동관을 탈취하고자 하니, 가서한이 그를 격퇴하였다(乙丑, 安祿山遣其子慶緒寇潼關, 哥舒翰擊卻之.)”라는 기록에 의거하면, 이 시의 앞 6구의 가서한에 대한 묘사는 실제에 부합한다. 그러나 끝 2구는 역사적 인물 衛青과 白起를 폄하하였다. 이는 가서한을 지나치게 높이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의 묘사 인물을 부각시키고자 과거의 유명 인물을 낮추는 수법을 운용한 것으로 일종의 襯托수법이다.

3. 결 론

이상 3수 작품은 李白이 각각 崔成甫·李邕·可舒翰에게 보낸 시이다. 제2수 <贈崔侍御>는 시인이 최성보의 천거를 받아 司馬相如처럼 황제의 부름받

48)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461쪽.

49)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461쪽.

기를 희망하였다. 시 가운데는 ‘三尺鯉’로 자신을, ‘歸來伴凡魚’로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였다. 이러한 처지에서 시인은 사마상여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동경하고 있다. 현재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현재의 불우를 미래의 동경으로 대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28수 <上李邕>은 이옹이 젊은이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였으며, 이백의 장대한 뜻과 강렬한 用世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시 가운데 특색은 ‘大鵬’으로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이백은 자신의 일생을 ‘大鵬’으로 자부하였다. 이 시와 더불어 <大鵬賦>·<大鵬遇稀有鳥賦>·<餘風激兮萬歲> 등에서 노래한 ‘大鵬’은 모두 이백 形象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9수 <述德兼陳情上哥舒大夫>는 “국가의 운명은 가서한에 달려 있다(國命懸哥舒)”(<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遊書懷贈江夏韋太守良宰>)와 더불어 볼 때, 시인의 감정은 가서한에게 매우 傾倒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이 가서한을 구국의 중요인물로 여겼으며 또한 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시인은 이러한 심리를 ‘襯托’수법을 통해서 드러내었다. 朱諫 등 여러 평론가들은 이 시가 ‘述德’은 있지만 ‘陳情’의 말은 없다고 하여 ‘闕文’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⁵⁰⁾ 이러한 관점은 시의 결말이 미진하게 끝났다는 점에서 나름 일리가 있다.

이백의 이러한 ‘贈詩’는 시를 받는 이를 칭송하기도 하고 자신의 역량과 회재 불우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고 자신의 천거를 간절히 바라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다양한 비유, 수사, 전고를 활용하였다.

< 參考文獻 >

王琦 輯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50) 詹鍇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1372쪽 참고.

- 瞿蛻園·朱金城 校主,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韓嬰 著, 許維通 集釋, 《漢詩外傳集釋》 권9, 北京: 中華書局, 1980.
-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 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 郁賢皓 主編, 《李白大辭典》, 桂林: 廣西教育出版社, 1995.
- 詹鐸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詹福瑞 等譯,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 陳貽欣 主編, 《增訂注釋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2001.
- 蕭士贊, 《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 郁賢皓 注譯, 《新譯李白文集》, 臺北: 三民書局, 2017.
- 郁賢皓 校注, 《李太白全集校注》, 南京: 鳳凰出版社, 2017.
-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 서울: 學古房, 2015.

< Abstract >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Libai's "Presented Poems"(6):
From The 27th Poem to The 29th Poem

Cho, Sungchun · Cho, Deukchang

This study is a set of annotations and translations in a consecutive order on poem 27 to 29, from the 8th volume 'Presented Poems(贈)' of Libai(李白)'s 《a collection of Litaibo(李太白)'s works》. If translation comments of Li Bai's 'Presented Poems(贈)' have a progress, it will be one of most important material for research on Li Bai.

The first poem was given to his close friend Cui Chengfu(崔成甫). In the poem, Li Bai was thankful to Cui Chengfu for his warm welcomes several times, hoped that he would recommend him again, expecting to be called by the

Emperor just like Sima Xiangru(司馬相如). The second poem expresses that Li Yong(李邕), even though he was young, should not be undervalued while Li Bai likened himself to Giant Roc(大鵬). The third poem was written in praise of General Geshu Han(哥舒翰) by the poet. The first half of this poem describes General Geshu Han that is very close to his real appearance. In the last half, Wei Qing(衛青) and Bai Qi(白起), who are historical figures, were, however, talked down in an attempt to highly appreciate General Geshu Han. It is believed that Li Bai intended to gain recognition from General Geshu Han.

Key words: Presented Poems, Li Bai(李白), Cui Chengfu(崔成甫), Li Yong(李邕), Geshu Han(哥舒翰)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7. 28.	2019. 8. 10.	2019. 8. 12.	2019. 8. 28.	2019. 9. 30.